

< 아트어드바이저 정윤아의 『현대미술 강좌』>

3. 나는 기계가 되고 싶어요, 당신은 아닌가요?

1. 팝아트의 등장: 런던

- 1950년대 초 영국에서 등장
- 1954~1955년 겨울에 영국의 젊은 작가들이 공동작품 제작 관련 토론에서 팝아트란 말을 사용하기 시작.
- 대중소비문화에 대한 관심 하에 '이것이 내일이다 This is Tomorrow'展(1956년)이 런던에서 개최되고, 이 전시에 R. 해밀턴이 출품한 《오늘의 가정을 그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작품이 최초의 팝아트 작품이라 할 수 있음.
- popular culture 를 반영한 미술이라는 의미에서 영국의 미술비평가 로런스 앨러웨이 (Lawrence Alloway)가 Pop Art 라 명명

2. 팝아트의 본격적인 무대: 뉴욕

- 팝아트의 등장은 런던이었으나 팝아트의 본격적인 무대는 뉴욕
- 19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 미국에서 젊은 작가들이 고급미술을 지향하는 추상표현주의에 반기를 드는 동시에 매스 미디어, 광고 등 대중문화 이미지를 미술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면서 본격화
- 팝아트의 선배 세대인 로버트 라우션버그와 재스퍼 존스는 1950년대 중반부터 각종 대중문화적 이미지를 활용. 이들의 작업이 다다이즘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고 해서 네오 다다(Neo dada)로 불려짐.
- 네오 다다 & 팝아트와의 공통점: 대중문화 이미지 사용으로 고급문화로서의 미술에 반기를 드는 성향
- 차이점: 네오 다다는 대중문화 이미지를 예술과 일상의 간격에 관해 언급하기 위해 개념적으로 사용한 데 반해 팝아트는 대중문화 이미지를 소비문화의 단면으로, 그리고 그것을 적극 수용하고자 한 점)
- 팝아트는 텔레비전, 영화, 잡지, 빌보드 등 매스 미디어와 광고를 비롯하여 캠벨 스프, 코카 콜라, 만화 속의 주인공 등 일상적인 소재들을 미술 속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순수예술 vs. 대중예술이라는 이분법적, 위계 구조 및 질서를 불식시키고자 함.

3. 영국 팝아트와 미국 팝아트의 공통점 및 차이점

공통점: 대중문화 이미지 사용으로 고급예술 vs. 대중예술이라는 기존 질서에 반기를 든 점.

차이점: 영국 팝아트는 사회 비판적 의도를 강하게 내포한 반면 미국 팝아트는 상품미학에 대한 진정한 비판적 대안의 제시보다 소비문화를 수용, 우상화 함

4. 팝아트에 대한 철학적 접근

(1) 아서 단토(Arthur Danto, 1924-): 역사적 발전 선상의 <예술의 종말>

워홀의 브릴로 박스가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브릴로 박스와 구분할 수 없는 것일 때 무엇이 이것을 예술로 만드는가? 결국 팝 아트는 미술의 철학적 진리를 자의식으로 가져옴으로 해서 서양미술의 역사적 서술 방식에 종지부를 찍음

(2) 서양미술의 두 가지 에피소드

1) 바자리 에피소드

미술을 재현적인 것으로 이해한 바자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술이 "시각적 외관의 정복"에 더 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 이러한 내러티브는 사진이 회화보다 더 낫다는 사실이 증명되자 회화에 대해서 종말을 고하게 됨.

2) 그린버그 에피소드

모더니즘은 사진이 회화보다 재현을 잘 할 수 있다면 회화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음으로써 시작. 그린버그는 미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추상성과 평면성을 통해 회화의 의미를 정의. 그린버그의 이론은 추상 회화에만 해당되고 팝 아트와 함께 종말을 고하게 됨. 팝 아트를 통해 미술이 역사적 발전의 종말에 도달하였을 때, 즉 예술작품이 어떠한 특별한 방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술이 인식했을 때, 그린버그의 이론도 종말에 이름.

"모든 것이 예술작품이다", "모든 사람이 예술가다"의 슬로건 앞에서 철학적 정체성을 향한 미술의 탐구는 종료되고 예술가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해방됨. 어떤 것도 나머지 것들보다 더 옳다고 할 수 없으며 단일한 방향은 존재하지 않음. 방향 그 자체가 없어짐. 이것이 단토가 말하는 예술의 종말. 미술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미술의 죽음을 의미하며, 다시 말해 역사에서 해방된 탈역사적, 새로운 미술의 시작을 의미.

→다원주의: 팝 아트 이후에는 모든 것이 예술일 수 있다는 것. 미술의 본질이 양식적인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것

(3)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1929-2007): 평범함의 초미학

팝 아트에 이르러 완전한 시뮬라크르(복제의 복제, 또는 원본 없는 복제)가 실현되었다고 평가. 이전의 미술은 모두 심층적인 세계상에 근거를 둠. 예를 들어 입체파는 사실적 재현 대신 공간의 본질이나 기하학의 비밀을 추구. 뒤샹도 사물에서 부르주아적인 기능을 빼앗음으로써 부조리가 일으키는 잃어버린 본질과 진정한 영역을 상기. 이전 미술은 개인적인 것이든 비판적인 것이든 초월성을 담보로 함. 팝 아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지시할 아무런 대상이 없는 기호의 내재적 질서에 전격적인 동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팝 아트는 대중예술임을 자처하나 이면에는 현대적 사물의 진짜 모습은 용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작용에 있으며, 도구로서가 아니라 기호로서 조작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냄.